

히토쓰바시대학교 입학식

2013년 4월 2일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수수미 야마우치(Susumu Yamauchi) 총장님과 입학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토쓰바시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대표 명문대학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히토쓰바시대학교와 1994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2011년에는 양교의 경영대학간 “Campus Asia”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류협력을 진행 중으로 양교 간 연구 및 학생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대학 입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역량을 가꾸어나가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타율과 관성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임을 알고, 대학이 부여하는 여건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도전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이를 실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젊은이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대학인의 진정한 자부심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대학생활은 지금까지 해 왔던 공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학은 주어진 정답만을 학습하는 곳도,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도 아닙니다. 대학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국의 격언이 말해주듯이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로 학업에 임하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수준 높은 교양인이 되기 위한 자질을 부단히 연마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문 간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지적 호기심과 융합적 상상력,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휴머니즘을 익히고 가꾸는 일 또한 대학인의 당연한 소명입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를 고뇌하고 삶의 궁극적 가치를 성찰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분은 끝없는 자기실현을 향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저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생활은 청춘의 열정과 낭만, 그리고 특히 도전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큰 배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는 신념으로 학창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존해왔던 틀을 과감히 깨고 자기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한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 극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에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갖고 진취적으로 도전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밝은 미래를 맞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지식 탐구의 주체로서 관심 있는 주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물과 현상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학습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입장을 지키면서, 자신이 조명하는 주관적 가치관을 아울러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창조적 가치와 비판적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한 수업은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를 넓힐 수 있는 계기일 뿐이며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강의실에서 얻은 지식을 여러분 스스로 심화·확산시켜야 합니다. 배운 지식을 스스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으며, 이럴 때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대학은 사회에 희망의 불빛을 던져주고 함께 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원동력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학의 발전 없이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사회의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학은 늘 제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히토쓰바시대생이 되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식탐구에 매진하면서도 나누고 배려하는 노력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장서되 뒤를 바라볼 수 있고, 달려가되 넘어진 자도 부축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따뜻한 심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처럼 우수한 두뇌를 갖고 선택된 인재들이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누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공동체를 선도할 책임 있는 청년 지식인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된 노력은 히토쓰바시대학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밝은 미래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는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 대학시절만한 인생의 황금기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다 긴 안목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입학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